

Session 3 Holy Spirit Conviction: Contending for Ultimate Power (Jn. 16:8-11)

세션 3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최고의 능력(요 16:8-11)

“Let me drink from the river of Your pleasures as I delight in Your beauty” (Ps. 36:8; 37:4)

“저로 주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며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소서”(시 36:8, 37:4)

I. THE ULTIMATE POWER IN HUMAN EXPERIENCE IS SUPERNATURAL CONVICTION

인간이 경험하는 최고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죄의 자각이다

- A. Jesus described one of the most important ministries of the Holy Spirit—to convict, convince, and correct people concerning the truths about sin, righteousness, and judgment. This includes the Spirit convincing the world of *its* sin, *its* righteousness (as inadequate), and *its* judgment (its false views). The Spirit will do this as He supernaturally fastens truth on the heart so that one’s conscience is deeply troubled, leading them to repent. This is supernatural work that is much more than human gifting, personality, and presentation—it cannot be imitated or produced by sincere human zeal. 예수님은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진리에 관해 사람들을 깨우치시고 확신시키시며 고치시는 일이라고 설명하셨다. 여기에는 성령님이 세상의 죄, (충분치 않은) 공의, (잘못된 관점의)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것을 포함한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으로 진리를 마음에 고정시켜 양심이 깊이 괴로워하며 회개하도록 인도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 이것은 인간의 은사, 인격, 표현력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이며. 인간의 진실된 열심으로 모방하거나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다.

⁸*When He has come, **He will convict the world of sin, and of righteousness, and of judgment.*** (Jn. 16:8)

⁸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 16:8)

- B. In the face of persecution and great sorrow (Jn. 15:18-6:5), Jesus promised to help by sending the Spirit to empower them especially with supernatural conviction (Jn. 16:8). Here, Jesus elaborated on what He had just promised them about the Spirit *testifying to and through them* (15:26-27). This supernatural activity of the Spirit is essential in empowering the end-time Church to walk in victory. 예수님은 제자들이 핍박과 큰 슬픔을 만날 때(요 15:18-6:5), 성령님을 보내셔서 특별히 초자연적으로 깨우치심으로 그들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요 16:8). 여기서 예수님은 방금 전에 약속하셨던 성령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증거하시며 또한 그들을 통해 증거하실 것이라고 하셨다(15:26-27). 이러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활동은 마지막 때 교회가 승리 가운데 행하도록 강건케 하는데 필수적이다.

¹⁹*...the world hates you...²⁰they will also persecute you...²⁶When the Helper comes, whom I shall send from the Father...**He will testify of Me.** ²⁷And you will **bear witness...*** (Jn. 15:19-27)

¹⁹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²⁰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²⁶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²⁷ 너희도... 증언하느니라 (요 15:19-27)

C. John 16:8 has captured my life and directed my focus in prayer and vision for revival since 1978 when I read biographies of George Whitefield (1714-1770), David Brainerd (1718-1747), Jonathan Edwards (1703-1758), and John Wesley (1703-1791) who lived during the *First Great Awakening* in America (1730-1755). Charles Finney (1792-1875) preached during the *Second Great Awakening* (about 1800-1850). The meetings at Cane Ridge, Kentucky (early 1800s) had 25,000 in attendance. 요한복음 16 장 8 절 말씀은 내 삶을 사로잡았고 내 삶이 부흥을 위한 기도와 비전에 집중하도록 했다. 1978 년에 미국 제 1 차 대각성 운동(1730-1755 년) 때의 조지 윗필드(1714-1770 년), 데이빗 브레이너드(1718-1747 년), 조나단 에드워드(1703-1758 년), 존 웨슬리(1703-1791 년)의 전기를 읽으면서부터 였다. 찰스 피니(1792-1875 년)는 제 2 차 대각성 운동(약 1800-1850 년) 시기에 설교했다. 켄터키 주의 케인 리지(1800 년대 초)에서 열린 집회에는 25,000 명이 참석했다.

D. I encourage all to become students of revival to see how God works and how much He is willing to do through prayer. I read the biographies of these men over and over. Their stories gave me a vision in my twenties to see many come to salvation in context to supernatural conviction. 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흥을 연구하는 학생이 되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도를 통해 얼마나 기꺼이 행하시는지 알기를 바란다. 나는 이분들의 전기를 읽고 또 읽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의 20 대에 많은 이들이 초자연적인 죄의 자각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는 비전을 주었다.

E. The spirit of conviction was the primary work of grace in the First and Second Great Awakenings in America. These men preached with great power seeing God’s word as a sword, fire, and hammer. 죄를 깨닫게 하는 영은 미국의 제 1, 2 차 대각성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역사였다. 이들은 큰 권능으로 설교했고 하나님 말씀을 검과 불과 방망이로 여겼다.

¹²***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powerful, and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piercing even to the division of soul and spirit...and is a discerner of the thoughts and intents of the heart.*** (Heb. 4:12)

¹²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 4:12)

²⁹***“Is not My word like a fire...and like a hammer that breaks the rock in pieces?”*** (Jer. 23:29)

²⁹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나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나 (렘 23:29)

F. Supernatural conviction can be released many ways such as through preaching, singing, writing, drama, media productions, etc. 초자연적인 죄의 자각은 설교, 노래, 글, 드라마, 미디어 제작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풀어질 수 있다.

- G. George Whitefield was 22 years old when he began to preach to gatherings of ten thousand. As the power of God descended on them, they cried out for mercy. Jonathan Edwards preached the famous sermon,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He read it by candlelight in the evening meetings, yet people wailed under the conviction of sin. In 1857, Charles Finney preached in New York City along with others—in his biography, he wrote that 500,000 new converts came to Jesus that year. 조지 휘트필드는 22 세 때 만 명이 모인 모임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유명한 설교인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다. 그는 저녁 집회에서 촛불을 켜고 이 설교를 읽었고,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되어 통곡했다. 1857 년 찰스 피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뉴욕에서 설교했는데, 그의 전기에는 그 해 50 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 H. Throughout history, when the spirit of conviction has been fully manifested, the Word took hold of the hearts of people until they were powerfully converted. We see this throughout the book of Acts. 역사를 통틀어 죄를 깨닫게 하는 영이 충만히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이 강력하게 회심하도록 이끄셨다.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³⁷When they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 and said to Peter... “What shall we do?”

³⁸Peter said, “Repent...” ⁴¹that day about three thousand souls were added to them. ⁴²They continued steadfastly in the apostles’ doctrine...⁴³Fear came on every soul. (Acts 2:37-43)

³⁷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³⁸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⁴¹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⁴²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⁴³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행 2:37-43)

⁴Many of those who heard the word believed; and the number came to be...five thousand...

³¹When they had prayed, the place...was shaken;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they spoke the word of God with boldness...³³And with great power the apostles gave witness to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And great grace was upon them all. (Acts 4:4, 31-33)

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³¹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³³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행 4:4, 31-33)

⁴⁴While Peter was speaking these words, the Holy Spirit fell upon all those who heard the word. (Acts 10:44)

⁴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행 10:44)

²³...[Barnabas]...had seen the grace of God... ²⁴a great many people were added to the Lord.

²⁶...for a year they assembled with the church and taught a great many people. (Acts 11:23-26)

²³[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²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²⁶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행 11:23-26)

- I. This is the essence of what happened in Asia in Acts 19. Paul prayed for more of the release of conviction or revelation of God's heart. This is the ultimate manifestation of God's glory in this age. 이것이 사도행전 19 장에 나오는 아시아에서 일어난 일의 본질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깨달음 혹은 계시가 더 부어지기를 기도했다. 이것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나타나는 것이다.

¹⁰*All who dwelt in Asia heard the word of the Lord Jesus [from the revival in Ephesus]...*

²⁰*So the word of the Lord grew mightily and prevailed [throughout all Asia]. (Acts 19:10, 20)*

¹⁰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에베소에의 부흥으로부터]... ²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홍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아시아 전역에 걸쳐] (행 19:10, 20)

¹⁷*that the Father of glory, may give to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in the knowledge of Him, ¹⁸the eyes of your understanding being enlightened; that you may know...* (Eph. 1:17-18)

¹⁷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¹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엡 1:17-18)

- J. This power is essential in the generation that Jesus returns as sin reaches fullness (Dan. 8:23; Rev. 9:21), with many false teachers who deceive (Mt. 7:15, 22-23; 24:4-5, 11, 24; Mk. 13:5-6, 22; Lk. 21:8; 2 Thes. 2:3; 1 Tim. 4:1; 2 Tim. 3:1-5, 13; 2 Pet. 3:2; 1 Jn. 2:18; 4:1; Rev. 13:14; 18:23; 19:20). 이 능력은 죄가 가득하고(단 8:23, 계 9:21), 많은 거짓 선생들이 미혹하는 때 예수님의 재림 세대에 필수적인 것이다(마 7:15, 22-23, 24:4-5, 11, 24, 막 13:5-6, 22, 눅 21:8, 살후 2:3, 딤후 4:1, 딤후 3:1-5, 13, 벴후 3:2, 요일 2:18, 4:1, 계 13:14, 18:23, 19:20).

- K. This will b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spects of the end-time move of the Spirit on Israel and the nation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spects of "Presence worship" is conviction unto obedience.

이것은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성령님이 마지막 때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는 죄를 깨닫게 되고 순종하는 것이다.

¹⁰*"I will pour on...the inhabitants of Jerusalem the Spirit of grace and supplication; then they will look on Me... Yes, they will mourn for Him as one mourns for his only son..." (Zech. 12:10)*

¹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슌 12:10)

- L. The supernatural release of the spirit of prayer (Zech. 12:10; Rom. 8:26) is a sovereign work of the Spirit that is released in God's sovereign timing in a nation or geographic area. It is as sovereign as the Lord having a time for the spiritual drought to lift over USA as confirmed on August 23, 1983. 기도의 영이 초자연적으로 부어지는 것은(슌 12:10, 롬 8:26)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에 한 국가나 지역 가운데 부어진다. 1983년 8월 23일에 주님이 미국에 영적 가뭄이 해소되는 때를 주신 것과 같이 주권적인 일이다.

²⁶...the Spirit also helps in our weaknesses. For we do not know what we should pray for as we ought, but the Spirit Himself makes intercession for us with groanings which cannot be uttered. (Rom. 8:26)

²⁶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 8:26)

II. THE SPIRIT'S CONVICTION OF SIN (JN. 16:9)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요 16:9)

- A. The Spirit convinces people of the truth about sin—the fact, folly, filth, and fruit of it (Rom. 3:23). He reveals our sin to us; otherwise we would never see ourselves as sinners. He convicts people so that they are compelled to seek for God's mercy through Jesus.

성령님은 죄에 대한 진리, 곧 죄의 실상, 어리석음, 더러움, 열매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롬 3:23).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자신을 죄인으로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죄를 깨닫게 하신다.

⁸He will convict the world of sin...⁹because they do not believe in Me. (Jn. 16:8-9)

⁸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⁹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 16:8-9)

- B. The world has different views of what they define as “sin” as in a set of moral codes or duties. Many view sin as particular activities. The Spirit will empower the Church with conviction at an unprecedented level in the end times when sin reaches fullness (Dan. 8:23) and when many reject the authority of the Word (Ps. 2:3). The Spirit will powerfully clarify and confirm God's views sin. 세상은 일련의 도덕 규범이나 의무에서 “죄”로 정의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특정한 행위로 간주한다. 성령님은 죄가 가득해지고(단 8:23)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권위를 거부하는(시 2:3) 마지막 때에 전례 없는 차원으로 교회에 죄에 대한 깨달음을 부어 주실 것이다. 성령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를 강력하게 밝히시고 확증해주실 것이다.
- C. **Because they do not believe in Me:** Jesus presented unbelief as the way to see the true nature of sin. Belief in Christ is to embrace His rightful leadership as King and the truthfulness of His remarkable claims. To refuse to believe this is a charge of treason against Him as King (Jn. 20:28).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죄의 본질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불신을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왕이신 그분의 정당한 리더십과 그분의 놀라운 주장의 진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를 믿지 않는 것은 왕이신 그분에 대한 반역의 죄다(요 20:28).
- D. Jesus is the greatest revelation of God's beauty that was ever given to the human race. The essence of all sin is unbelief in Jesus as the God-Man who has all glory and authority. 예수님은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계시다. 모든 죄의 본질은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다.

- E. This root sin is to refuse Jesus' leadership in their lives. It is thus the first sin of which the Spirit convinces men. Sin here is not one on a long list of moral failures but is choosing another god. It is this sin that puts self at the center of things as the reason for being and for refusing to believe. This is the sin of seeing themselves as the highest authority in their life—even above God. 이 근본적인 죄는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님이 인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첫 번째 죄다. 여기서 죄는 여러가지 도덕적 실패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선택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존재의 이유로 모든 것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 믿기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이 죄다. 이 죄는 자신을 삶의 최고 권위자로 여기는 것, 심지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죄다.
- F. All disobedience is sin, but this is placed first and is deemed as the sin of chief magnitude, the principal one of which all men are guilty. 모든 불손종이 죄이지만, 이 죄는 가장 우선에 놓여 있으며 모든 이들이 가장 큰 죄인 이것에 유죄다.
- G. Throughout the New Testament this is regarded as the sin that is pre-eminently offensive to God.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상하게 하는 큰 죄로 여겨진다.
- H. Unbelief is far more than an error of judgment. It is aversion of heart. Unbelief exposes our moral problem, not our intellectual struggle. Jesus said that men love the darkness rather than the light. Some imagine their main issue in refusing Jesus is due to their intellectual difficulties in accepting His claims, but Jesus said it was a moral issue and that anyone can know the truth (Jn. 7:17). 불신앙은 판단의 오류 그 이상이다.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혐오다. 불신은 우리의 지적인 고군분투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고 하셨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주된 문제가 그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데 지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도덕적 문제이며 누구나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하셨다(요 7:17).

¹⁹And this is the condemnation, that the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and men loved darkness rather than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Jn. 3:19)

¹⁹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 3:19)

¹⁷If anyone wills to do His will, he shall know concerning the doctrine, whether it is from God or whether I speak on My own authority. (Jn. 7:17)

¹⁷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 7:17)

III. THE SPIRIT'S CONVICTION OF RIGHTEOUSNESS (JN. 16:10)

의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요 16:10)

- A. The Holy Spirit reveals the truth about righteousness. The multi-faceted diamond of righteousness includes Jesus' innocence, holiness, imparted righteousness, how much God loves and values righteousness in our lives (Heb. 1:9), and that Jesus' message is right and not debatable (Ps. 2:3). 성령님은 의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신다. 다채로운 다이아몬드 같은 의에는 예수님의 죄 없으심, 거룩함, 전가되는 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히 1:9),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옳으며 논쟁의 의지가 없다는 것(시 2:3) 등이 포함된다.

¹⁰*of righteousness, because I go to My Father and you see Me no more...*" (Jn. 16:10)

¹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요 16:10)

- B. The Father's declaration of Jesus' innocence is diametrically opposed to the world's view of Him. Jesus was condemned by the highest authority of the nation as being guilty. The world regarded Jesus as a sinner (Jn. 9:24) and itself as righteous (Lk. 18:9).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한 아버지의 선언은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견해와는 정반대다. 예수님은 국가의 최고 권위자로부터 유죄라는 정죄를 받으셨다.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겼고(요 9:24),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다(눅 18:9).

- C. ***I go to the Father:*** His resurrection and His exaltation to the Father vindicated Jesus in all things. The ascension of Jesus is the guarantee and proof of His righteousness and that His atoning death was accepted by the Father and thus assured His ability to impart it freely to sinful people. They assumed Jesus would decay in the tomb. Jesus' installation into the splendor at the Father's right hand vindicates His righteous life (12:23; 13:31-32; 17:1, 5; 1 Tim 3:16).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분의 부활과 승천(아버지께로 가심)은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의 의를 보증하고 증명하는 것이며, 그분의 속죄의 죽음이 아버지께 받아들여져 죄인들에게 그분의 의를 값 없이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보장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썩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그분의 의로운 삶을 입증하는 것이다(12:23, 13:31-32, 17:1, 5, 딤후 3:16).

- D. Jesus' ascension proves that His atoning death was righteous and accepted (Acts 2:33-36).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의 속죄의 죽음이 의롭고 인정된 것임을 증명한다(행 2:33-36).

³³*Therefore being exalted to the right hand of God, and having received from the Father the promise of the Holy Spirit, He poured out this which you now see...*³⁶*Therefore let all the house of Israel know assuredly that God has made this Jesus...both Lord and Christ."* (Acts 2:33, 36)

³³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³⁶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행 2:33, 36)

- E. **You see Me no more:** Jesus entered His resurrected glory (Rev. 1:12-18). To see Him after that would be a great and rare privilege. They should see Him no longer in a lowly state of humiliation.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다(계 1:12-18). 그 후에 그분을 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며 흔치 않은 특권일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이 수치스럽고 비천한 상태에 계신 모습을 보지 않을 것이다.

IV. THE SPIRIT'S CONVICTION OF JUDGMENT (JN. 16:11)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요 16:11)

- A. The prince of this world has already been judged and defeated. The verdict of the heavenly court rendered, "Guilty!" to Satan the prince of the world (Jn, 12:31; 14:30). If Satan was defeated and judged by Jesus, we can be sure no other power can stand before Him. On the day of judgment, all of Jesus' enemies shall be also be judged even as Satan was. John vividly describes Satan's final defeat in the book of Revelation (Rev. 14:17-20; 19:17-21; 20:1-3, 7-10).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고 패배했다. 하늘 법정의 판결은 이 세상 임금인 사단에게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다(요 12:31, 14:30). 사단이 예수님에 의해 패배하고 심판을 받았다면, 다른 어떤 세력도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심판 날에는 예수님의 모든 원수들도 사단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의 최후 패배를 생생하게 묘사한다(계 14:17-20, 19:17-21, 20:1-3, 7-10).

¹¹Convict of judgment: because the ruler of this world is judged. (Jn. 16:11)

¹¹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라 (요 16:11)

- B. The Spirit convicts the world of the judgment that is coming on it and on them for its sins. God's judgment is the most politically incorrect doctrine that is hated by all who reject His Word.
성령님은 세상에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데, 죄로 인해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알리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든 이들이 미워하는 가장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교리다.
- C. The resurrection of Jesus brought judgment on Satan and his kingdom (Col. 2:15).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과 그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가져왔다(골 2:15).

¹⁵Having *disarmed* principalities and powers, He made a public spectacle of them, triumphing over them in it [His death and resurrection]. (Col. 2:15)

¹⁵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 2:15)

- D. Since the ruler of the world stands condemned, his children can expect the same treatment (Jn. 8:44). The prince of the world and all who side with him stand condemned. They are wrong in thinking that God's judgment will not come to them since God already judged the ruler of this world.
세상의 통치자가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동일한 처우를 기대해야 한다(요 8:44). 세상 임금과 그와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은 정죄를 받았다. 그들을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의 통치자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E. The guilty verdict of the court is rendered against all the opponents of Jesus. The Holy Spirit will convince them of Jesus being invested with power to execute judgment because Satan has already been judged by Jesus' work on the cross. The great head of darkness is already condemned.
 법정의 유죄 판결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내려진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 그들에게 알리실 것이다. 이는 사단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심판 받았기 때문이다. 어둠의 수장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
- F. God's judgment is revealed and the world's deception about God's judgment is exposed by the Spirit supernaturally convincing unbelievers as the Gospel is preached.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세상의 미혹이 드러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님은 초자연적으로 불신자들에게 이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세상의 미혹을 드러내실 것이다.
- G. The world has a prince, yet we hear little about "this prince of the world" in cultural conversations.
 이 세상 임금의 있음에도 우리는 세상 문화의 대화 속에서 "이 세상 임금"에 대해 거의 듣지 못한다.

V. THE RELATIONSHIP OF ANOINTED PREACHING AND THE SPIRIT OF PRAYER

기름부음 있는 설교와 기도의 영의 관계

- A. There is a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anointed intercession and anointed preaching. Both require a supernatural work of the Spirit in and through us. Holy Spirit anointed preaching pierces the heart in a very deep way that is even more powerful than raising the dead physically.
 기름부음 있는 중보기도와 기름부음 있는 설교 사이에는 역동적인 관계가 있다. 둘 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기름부으시는 설교는 죽은 자를 육신적으로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심령 깊숙이 파고든다.
- B. I read Brainerd's biography nearly daily for almost 5 years. I noticed a *cause-effect dynamic* in the grace of God in Brainerd's ministry. When God granted him unusual grace in prayer with groaning (Zech. 12:10; Rom. 8:26), then power on his preaching usually followed to bring people to Christ.
 나는 브레이너드의 전기기를 5년 동안 거의 매일 읽었다. 나는 브레이너드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과 관계에 있음을 발견했다. 하나님은 그에게 탄식하는 기도로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 때(슌 12:10, 롬 8:26), 대부분 그의 설교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뒤따랐다.
- C. Leonard Ravenhill spoke of a time that Brainerd was lying in the snow for several hours under the burden of the spirit of prayer (travail). He sweat so much that the snow melted around him. The next day, when he preached to unbelievers, the power of God fell on his Native American audience.
 레너드 레이븐힐은 브레이너드가 (해산의) 기도의 영의 부담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눈 속에 누워 있었던 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 주위의 눈이 다 녹아버렸다. 다음 날 그가 불신자들에게 설교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아메리카 원주민 청중들에게 임했다.

- D. Brainard embraced regular fasting and prayer, seeking to be anointed with the *spirit of prayer*. I set my vision to seek for the Spirit's "gift" of the *spirit of prayer* that results in anointed preaching. 브레이너드는 기도의 영으로 기름부음을 받기 위해 규칙적인 금식과 기도의 삶을 살았다. 기도의 영이라는 성령의 "은사"를 구하여 기름부음을 받은 설교를 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 E. In the spring of 1982 in St. Louis, *God showed me the relationship of the spirit of prayer* (anointed intercession) *to anointed preaching to win new souls*. One Saturday night in March, for the first time, a spirit of prayer (travail) sovereignly fell on me in a prayer time. I wept for souls for almost one hour. I said to myself, "This is what Brainerd experienced. Tomorrow I will see if an unusual release of grace to win souls is on my Sunday morning message." It was a "holy experiment" in the grace of God. The next morning as I preached, about 100-200 people were weeping during my message. I could hear their soft cries as I preached. During our altar calls, we often had one or two people get saved each Sunday. On this day, about 20 unbelievers came forward and wept at the altar over their sin, with a new desire to be saved.
1982년 봄, 세인트 루이스에서 하나님은 기도의 영(기름부음받은 중보기도)과 새로운 영혼을 얻기 위한 기름부음 받은 설교의 관계를 내게 보여주셨다. 3월의 어느 토요일 밤, 처음으로 기도 시간에 해산의 기도의 영이 주권적으로 내게 임했다. 나는 거의 한 시간 동안 영혼들을 위해 울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브레이너드가 경험한 것이다. 내일 주일 아침 메시지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거룩한 실험"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음 날 아침 설교를 하는데 대략 100-200 명의 사람들이 내가 설교하는 가운데 울고 있었다. 내가 설교하는 동안 그들이 우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주일마다 한 두 명 정도 강대상 앞으로 나와 결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날도 약 20 명의 불신자들이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결신하고자 소망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 울며 회개했다.
- F. Two months later, in May 1982, the same thing happened again to me during my Saturday night prayer time with almost the exact same results during my Sunday morning message. 두 달 후인 1982년 5월, 토요일 밤 기도 시간에 주일 아침 메시지에서 거의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다.

- G. We moved to Kansas City in November 1982. On April 3, 1983, at 6am, I was preparing for my Easter Sunday message. Suddenly, I began to travail in prayer for the lost souls that would be at the Easter service. It lasted for about two hours. I drove to the church, weeping for souls. At about 9am, the spirit of prayer (travail) came on me for another hour. The leaders shouted through my office door that the 10m service was starting. The grace of prayer continued on me past 11am. My eyes were slightly swollen from weeping. I was late in getting to the pulpit to preach. However, my message was unusually oppressed. I was confused. I invited people to come forward to be saved. No one came. Five minutes later, about 100 people were talking and mingling at the altar area. 우리는 1982년 11월 캔사스 시티로 이사했다. 1983년 4월 3일 새벽 6시, 나는 부활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갑자기 나는 부활절 예배에 참석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그 기도는 두 시간 정도 지속되었다. 나는 교회로 차를 몰고 가면서 영혼들을 위해 울었다. 오전 9시쯤, 해산의 기도의 영이 한 시간 더 내게 임했다. 리더들이 내 사무실 문을 통해 10시 예배가 시작된다고 외쳤다. 기도의 은혜는 오전 11시가 넘어서도 계속되었다. 내 눈은 눈물 때문에 약간 부어 있었다. 나는 설교를 하기 위해 강단에 늦게 올라갔다. 그러나 내 메시지는 유난히 눌러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사람들에게 결신하고 구원받기 위해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했다. 그러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5분 후에 오히려 백 여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이야기하고 교제하기 시작했다.
- H. Among the people, I saw three visitors standing in the altar area with their eyes closed, praying. When I put my hand on the first man, he instantly fell to the ground and wept openly. He cried, “Jesus, have mercy on me!” I went to a lady who was praying with her eyes closed and said, “Would you like prayer?” She nodded. I put my hand on her, and she fell to the ground weeping and groaning, “God, forgive me! Give me mercy.” The same thing happened to the third person. 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세 명의 방문자들이 앞으로 나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첫 번째 사람에게 손을 얹자 그는 즉시 바닥에 엎드려 평평 울기 시작했다. 그는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하고 부르짖었다. 나는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던 한 여자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손을 얹자 그녀는 땅에 엎드려 울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자비를 베풀어주세요.”했다. 세 번째 사람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 I. Bob Jones was speaking to several at the back of the sanctuary. He said to me, “You have had quite a day today. I saw it all last night in a vision. The Lord set you up to go fishing today. You were in a little fishing boat with the Lord. You were excited because the Lord put a net in the boat. You grabbed the net for a big catch today, but the Lord grabbed your hand and said, ‘You can’t throw the net today’ [*the net refers to mass evangelism*]. You were disappointed. He gave you a fishing hook, and you knelt down at the side of the boat and made three strokes in the water and pierced three fish through their heart.” (They represented the three souls saved that very morning.)
밥 존스는 성전 뒤편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군요. 어젯 밤 환상을 통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낚시하러 가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주님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배에 그물을 쳐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신이 낚지요. 당신은 오늘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집었는데, 주님께서 당신 손을 붙잡으시며 ‘오늘은 그물을 던지면 안된다’고 하셨어요. [그물은 대중 복음전도를 의미함]. 당신은 실망했죠. 주님은 낚시바늘을 주셨고, 당신은 배 옆에 무릎을 꿇고 물 속을 세 번 쳐서 물고기 세 마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 물고기들은 바로 그 날 아침 구원받은 세 영혼을 나타내는 것이다.)
- J. Bob continued, “In God’s sovereign time, He **will give this youth movement 1,000 times more power to pierce hearts** than you had today. They will be authorized to use His net. The nets will be full. The Lord told me that He set you up to understand this vision. Do not leave the place of praying for souls. A great anointing of the Spirit’s conviction will be released in God’s timing.”
밥 존스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에 그분은 이 청년 운동에 오늘보다 천 배 더 많은 마음을 찌르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그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물이 가득 찰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비전을 이해하도록 여러분을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의 큰 기름부음이 하나님의 때에 풀어질 것입니다.”
- K. In July 1988, Bob Jones spoke at a Bible study one Saturday night. I was not there. He said, “Tonight is going to be a big night for Mike. He will receive a visitation from an angel who will give him a **promise about intercession and souls from the gospel of John**. He may not even know that an angel visited him.” At 2:30am that morning, I was awakened from a sound sleep. I instantly began to travail with a spirit of prayer for the harvest in Kansas City for an hour. It was a sudden, sovereign work of the Spirit similar to what happened to me on Easter Sunday in 1983.
1988년 7월 밥 존스는 어느 토요일 밤 성경 공부 모임에서 말씀을 전했다. 나는 거기 없었다. 그는 “오늘 밤은 마이크 비클에게 중요한 밤이 될 것입니다. 그는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될 것이고, 천사는 그에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중보기도와 영혼에 관한 약속을 해줄 것입니다. 그는 천사가 자신을 방문했다는 사실조차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 날 아침 새벽 2시 30분, 나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즉시 캔사스 시티의 추수를 위해 한 시간 동안 영으로 해산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1983년 부활 주일에 일어났던 일과 비슷한 갑작스럽고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였다.

L. The Spirit spoke to me, “In My sovereign timing, I will supernaturally anoint prayer in your midst, and it will result in a great harvest of new souls in this city.” He said, “***I will draw them*** (Jn. 6:44). First, I will draw the intercessors into the anointing of the spirit of prayer, then I will draw the harvest in great numbers through them.” The next day I spoke what the Spirit said to me from John 6. Several told me what Bob said the night before about me preaching from John that day. 성령님이 내게 “나의 주권적인 때에 내가 초자연적으로 기도에 기름을 부어 이 도시에 새로운 영혼들이 크게 추수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내가 그들을 이끌 것이다(요 6:44). 먼저는 중보자들을 기도의 영의 기름부음으로 이끌 것이고 그 다음, 그들을 통해 많은 추수를 이끌어 낼 것이다.”라고 하셨다. 다음 날 나는 요한복음 6 장에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전했다. 몇몇 사람들은 전날 밤 밥 존스가 그날 요한복음 설교에 대해 한 말을 들려주었다.

M. I see a connection between the power conviction being released and “Holy Spirit” travail that is sovereignly initiated in contrast to that which is stirred up by the flesh.

나는 강력한 죄의 자각이 풀어지는 것과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주권적인 해산의 기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여긴다.

⁶³***It is the Spirit who gives life; the flesh profits nothing. (Jn. 6:63)***

⁶³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 6:63)

¹²***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¹³who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Jn. 1:12-13)

¹²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¹³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 1:12-13)

N. Jeremiah called for the wailing women to mourn over the impending destruction of Jerusalem and the exile of the Israelites. This call for mourning was a common practice in ancient times when a city was about to face disaster, such as war, invasion, or destruction. The wailing women were professional mourners who were skilled in expressing grief and sorrow. This was like saying, “Call the ‘funeral company’ because you will soon need them.” This verse is taken out of context by some well-meaning intercessors who are seeking to stir up the Spirit’s activity in a prayer meeting.

예레미야는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추방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곡하는 부녀들에게 애곡하라고 했다. 이것은 고대에 도시가 전쟁, 침략 혹은 파괴와 같은 재난에 직면했을 때 흔히 행해졌던 관행이었다. 곡하는 부녀들은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데 능숙한 전문 애곡자들이었다. 이 구절은 “‘상조 회사’를 불러라. 왜냐하면 곧 장례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일부 선의의 중보자들이 기도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려 이 구절을 문맥에 맞지 않게 취하기도 한다.

¹⁷***Thus says the LORD of hosts: “Consider and call for the mourning women, that they may come; and send for skillful wailing women, that they may come.”*** (Jer. 9:17)

¹⁷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렘 9:17)

- O. God commanded Jeremiah not to pray for Judah several times (Jer. 7:16; 11:14; 14:11-12). This emphasized the severity of His judgment against Judah due to their persistent rebellion.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여러 번 명하셨다(렘 7:16, 11:14, 14:11-12).

¹⁶“Therefore do not pray for this people, nor lift up a cry or prayer for them, nor make intercession to Me; for I will not hear you.” (Jer. 7:16)

¹⁶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렘 7:16)